폐업·불황형 실직자 22만명…정부 "고용종합대책 마련"

홍남기 "고용충격 대비 고용유지대책 등 4대 대응방안 논의"

3월 실업급여 신청 15만~16만명…10년만에 일시휴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가게 문을 닫거나 경기불황으로 직장을 잃은 '폐업·불황형' 실직자가 22만명에 육박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발 고용충격에 대비해 고용유지대책 등 4가지 고용종합대책을 마련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기대책회의에서 "고용지표의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4가지 중점 방안을 논의한 뒤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와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종합대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영향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16만명대로 잠정 파악됐다. 지난해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 12만5000명보다 2만5000명~3만5000명 늘어난 규모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직자와 일시휴직자도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폐업·도산과 회사불황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이른바 폐업·불황형 실직자는 9만1300명으로 전년동월 7만1000명보다 2만명(28.4%) 증가했다.

이는 2월 전체 고용보험 상실자 56만1000명의 16.3%를 차지하는 규모로, 고용보험 상실분류 기준이 변경된 2014년 2월 이후 2월 기준 사상 최대다.

경영상 필요나 회사불황으로 인한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는 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5만7000명보다 1만6000명(27.8%) 증가했다. 폐업·도산으로 인한 상실자는 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000명보다 4300명(30.6%) 늘었다.

특히 1월 고용보험 상실자 12만7000명까지 더할 경우 1~2월에만 경기악화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실직자는 2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취업자가 줄고 실직자가 늘었던 지난해 1~2월 21만5000명보다 3200명(1.5%)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산업에서 불황형 실직자가 많았다. 제조업이 2만23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숙박·음식업 1만3000명, 도·소매업 1만1100명, 보건·복지서비스업 9700명, 시설관리업 8100명 순을 나타냈다.

각 산업내 비중으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29.5%(240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보험설계사·카드판매원 등 프리랜서 형태의 특수고용 종사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어 제조업 21.5%, 숙박·음식업 19.9%, 협회·수리업 16.9% 등이 전체 폐업·불황형 실업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가계경제 허리인 40·50대가 가장 많았다. 50대는 폐업·불황형 실직자가 2만2000명에 달했으며 40대도 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30대 2만명, 20대 1만6000명, 60세 이상 1만2000명 순을 나타냈다.

50대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이 늘면서 실직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50대 불황형 실직자는 50대 내 고용보험 상실자의 22.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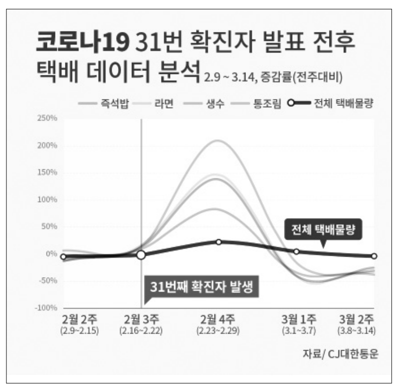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영향은 일시휴직자 증가에서도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일시휴직자는 61만8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만2000명(29.8%) 늘었다. 2010년 2월 15만5000명 이후 10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일시휴직자는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로 잡히지만 사실상 실직자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또 코로나19로 고용시장 문이 닫히면서 2월 쉬었음 인구도 235만7000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대로 늘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도 포기한 채 그냥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일컫는다.

조인호 기자

31번 확진자 이후 택배 물량 '급증'

CJ대한통운, 3월2일 하루 택배 960만건 처리



CJ대한통운이 지난 3월2일 하루에만 택배 물량 960만건을 처리했다. 국내에서 택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단일 기업이 처리한 사상 최대 물량이다.

9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나타난 2월18일 이후 '사재기'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데다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확산하면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이 급증했다.

CJ대한통운은 자사 택배 송장 정보를 바탕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2월1주~3월2주(2월1일~3월14일) 물품 데이터 1억8000만건을 분석했다.

31번 확진자가 발표된 2월18일 이후 온라인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 2월4주(23~29일) 생수·라면·통조림 등 비상 물품 주문량은 전주 대비 3배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통조림은 2월3주(16~22일) 4만건에서 4주 14만건으로, 라면은 12만건에서 31만건으로 폭증했다. 주말 물량이 통상 월요일에 송장 정보로 등록되는 점을 감안하면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첫 주말인 2월 21~23일 주문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CJ대한통운 택배를 기준으로 전체 물량은 3월1주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인된 2월4주에는 전주 대비 22% 증가한 3200만개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3월1주에는 3300만개까지 늘어나면서 주간 물동량의 정점을 찍었으며 3월2주에는 전주 대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정부가 헬스클럽, 주점 등 체육,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늘면서 이른바 '집콕족'의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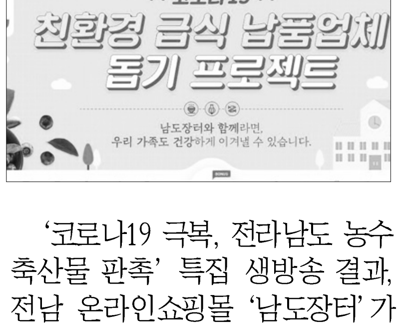
세계적 유행으로 번진 '달고나 커피'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카페와 관련한 상품인 커피메이커, 믹서기는 3월2주차에 전주대비 판매고가 크게 늘었다. 튀김기, 요구르트제조기 등 홈쿠킹 관련 항목도 역시 3월부터 주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과 전시 중단으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 소비자들이 늘면서 도서·음반 분야 배송 물량은 2월4주 170만건으로 전주대비 13% 증가했다. 보통 도서·음반의 경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1~2주에 크게 늘지만 올해 1주가 앞당겨진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택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택배를 생활기간산업으로 인식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택배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물류 빅데이터 정보로 세밀한 트렌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주문폭주



'코로나19 극복,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판촉' 특집 생방송 결과, 전남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가 주문이 폭주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친환경 생산농가를 돕기 위한 KBS 6시 내고향 판촉 생방송 동안 국민들의 자발적인 착한 소비에 힘입어 하루 동안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000만원(343개)어치를 포함, 2000만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도는 농수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 코로나19 극복 릴레이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다.

개학 지연으로 학교급식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친환경식재료를 육군 31사단과 장성군 소재 상무대, 공군 제1전투 비행단 등 군 장병 급식과 꾸러미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 전국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160여개 점포와 연계, 9일부터 전남산 대파 특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봉우 기자

기아차 텔루라이드, 월드카 어워즈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 상' 수상

기아차 텔루라이드가 '2020 월드카 어워즈'에서 최고 영예인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서 선정됐다.

기아자동차 북미 전용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텔루라이드가 한국 브랜드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월드카 어워즈'(World Car Awards·WCA)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쏘울 EV도 상을 받아 기아차는 2관왕을 달성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텔루라이드와 쏘울 EV는 8일(현지시간) WCA 주최 측이 발표한 2020 월드카 어워즈에서 각각 '2020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2020 세계 도심형 자동차'로 선정됐다. 세계 올해의 자동차는 시상 부문 중 최고의 영예로 꼽힌다.

WCA는 캐나다 토론토에 주최 본부를 둔 자동차 시상식으로 2004년 출범했다. '북미 올해의 자동차', '유럽 올해의 자동차'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힌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24개국의 자동차 전문기자 8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시승 등을 거친 후 비밀 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해 객관성과 공신력이 높다.

WCA는 매년 뉴욕오토쇼에서 최종 수상작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으로 2020 뉴욕오토쇼가 8월로 연기되면서 별도의 시상식을 열어 수상작을 발표했다.

WCA의 시상 부문은 최고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세계 도심형 자동차를 포함해 '세계 럭셔리 자동차', '세계 퍼포먼스 자동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등 5개다.

텔루라이드는 최종 후보(3개 차종)로 함께 올랐던 '마쓰다 CX-30'(SUV), '마쓰다3'(세단·해치백)를 제치고 세계 올해의 자동차로 등극했다. 전체 후보로는 29개 중 정상에 올랐다.

쏘울 EV는 전기차 '미니 일렉트릭'과 SUV '폭스바겐 T-크로스' 2개 차종과 경합을 벌였다.

이밖에 3개 부문에서는 '포르쉐 타이칸'이 2개 부문(세계 럭셔리 자동차, 세계 퍼포먼스 자동차)을, 마쓰다3가 1개 부문(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을 수상했다.

기아차의 2관왕 달성은 한국 브랜드 최초의 월드카 어워즈 수상 기록이다.

앞서 2019년 넥쏘와 쏘울이 각각 세계 친환경 자동차, 세계 도심형 자동차 부문에서 최종 후보로 지명됐으나, 수상은 불발된 바 있다.

텔루라이드는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북미 전용 모델이다. 뛰어난 디자인과 넓은 실내공간, 높은 실용성,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에서 강력한 주행성능 등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텔루라이드는 지난해 2월 미국 시장에 출시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7만5430대가 판매됐다.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받아 70여개의 자동차 분야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2020 북미 올해의 차',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전문지로 꼽히는 모터트렌드의 '2020년 올해의 SUV', 미국 유명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의 '2020 10베스트' 등 북미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자동차 상들을 연이어 받았다.

쏘울 EV는 배출가스 없는 친환경성, 볼드한 디자인, 컴팩트한 차체, 높은 실용성으로 도시에 가장 어울리는 자동차로 선정됐다.

쏘울 EV는 39.2kWh 또는 64kWh의 배터리 팩을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갖췄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유럽(WLTP) 기준 최대 452㎞(64kWh 배터리 모델, 한국 기준 386㎞)다.

쏘울 EV는 지난해 독일 유명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자이퉁이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토마스 쉬미에라 기아차 상품본부 부사장은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월드카 어워즈에서 텔루라이드와 쏘울 EV가 상을 받아 뛰어난 차량임을 입증했다"며 "고객들이 사랑하는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품질이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기아차, 음성인식 적용 'K9 2021년형' 출시…5437만원부터

신사양 기본 적용…고객 선택권 확대

기아자동차가 신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고객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한 대형 세단 'THE K9 2021년형'을 출시, 판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기아차는 THE K9 2021년형 내장 라인업에 밝은 갈색톤의 새들 브라운 색상을 도입하고, 실내에 엠비언트 라이트 적용 범위를 늘려 고급스러움을 강화했다.

또 음성 인식 기능을 신규적용해 창문과 선루프, 트렁크 개폐 및 시트 열선·통풍, 공조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앞좌석에는 고속 무선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기아차는 또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묶은 '베스트 셀렉션' 패키지를 신규 운영한다. 가솔린 3.8ℓ 가솔린, 3.3ℓ 터보 엔진별 트림은 각각 2종으로 단순화했다.

THE K9 2021년형의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고 개별소비세 1.5% 인하 기준 가솔린 3.8ℓ 모델 △플래티넘 5437만원 △그랜드 플래티넘 6837만원, 가솔린 3.3ℓ 터보 모델 △마스터즈 6557만원 △그랜드 마스터즈 7317만원이다. 가솔린 5.0 ℓ 모델 퀀텀은 9232만원이다.

기아차는 THE K9 2021년형 출시를 계기로 구매부터 출고 이후까지 특화된 차량 관리를 지원하는 'BEST 토탈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객은 차량 구매 유형에 따라 최대 1.0% 저금리 할부와 휴테크 안마의자 구독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기아차 관계자는 "THE K9 2021년형은 더욱 고급스러워진 상품성에 고객들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멤버십 서비스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신한·국민·우리·하나銀, 소상공인 대출 때 '같은' 신용등급 기준 적용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이른바 BIG4 은행이 소상공인 긴급대출 심사 때 나이스 평가정보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현장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창구를 확대하고 관련 경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들 은행들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중기부와 금융권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에 따라 이번달부터 1.5%의 금리로 보증서 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중 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신용등급 적용 과정에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4개 시중은행은 이번 자상한 기업 협약을 통해 이차보전 대출 심사 시 '나이스 평가정보'의 신용등급(1~3등급)을 적극 반영해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시중은행들은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은행별로 소상공인 전용 창구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금융권 자상한 기업은 기업생태계 조성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